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소송비용 결정서 따라 출석비용 지급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까지 보장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

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한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해당 특약은 이러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약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엠 하우스(M-House)’, ‘메리츠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seoul.co.kr



퇴직연금 ‘보증형실적배당보험’

가입자 선택지 확대... 20년 정액 지급



‘MVP펀드’ 연금 수령기까지 활용

미래에셋생명이 은퇴 후 연금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퇴직자를 겨냥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개인형IRP 상품을 선보였다. 올해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보증형실적배당보험’을 출시해 연금 수령 방식 선택권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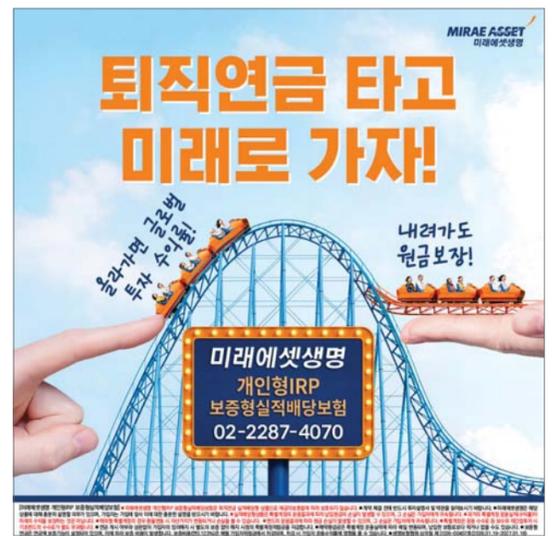
이번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은퇴자층의 수요를 겨냥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은퇴 후 연금 투자에서 투자 위험, 기대 수익률, 관리 편의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에 맞춰 상품을 설계했다.

미래에셋생명 개인형IRP 보증형실적배당보험은 50세 이상 고객이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납입 원금을 기준으로 240개월(20년) 동안 정액 지급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을 통한 퇴직연금 수령 방식이 연금전환특약 중심이었다면, 이번 상품으로 ‘보증형실적배당보험’ 방식이 추가되면서 가입자 선택폭이 확대됐다.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대표 일임형 자산배분펀드인 ‘MVP펀드’를 연금 수령기까지 활용하도록 설계했다.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240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에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액을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담았다.

특히 보장된 인출 구조와 전문가의 글로벌 자산 운용을 결합한 ‘스마트한 은퇴자산 인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적 보증, 전문가 운용, 글로벌 분산투자, 성과 연동 등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은퇴 생활에서 자산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주형 기자



‘스텝업700 NH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최대 30년·700% 체증



매년 가입금액의 20%씩 증가

NH농협생명이 매년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의 종신보험 신상품 ‘스텝업700 NH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장기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상품 구조를 단순화해 고객 이해도를 높인 점이 핵심이다.

이 상품은 20년납 단일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하나로 고정해 보장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망보험금은 매년 가입금액의 20%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최대 30년간 체증돼 가입 시점 대비 최대 700%까지 보장하는 초체증형 구조를 갖췄다. NH농협생명은

장기 보장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보장 강도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단위 활용도를 높인 특약도 포함됐다. ‘전환용 사랑이음NH종신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의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해 배우자나 자녀로 계약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가족 보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으로, 가입 연령은 일반가입 기준 남성만 15세~62세, 여성만 15세~67세다.

NH농협생명은 “장기 보장을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보장 구조는 강화하고 상품 구성은 단순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NH365일간병인보험’

간병인 입원일당 365일까지 보장



하루 최대 20만원, 1년간 지급

NH농협손해보험은 간병비 부담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 ‘NH365일간병인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입원 후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간병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간병인 입원일당의 보장 기간을 기존 180일 한도에서 최대 365일까지 확대한 점이다. 간병인 사용 일수에 따라 가입 금액 기준 하루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급해 장기 입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실제 지출한 간병인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입원지원비’ 담보도 탑재했다. 연간 간병인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사용 금액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200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가입 금액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액형 보장에 실제 비용 보전 기능을 더해 장기 간병에 따른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심사형도 운영된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85세까지, 보

장은 최대 100세까지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10년·15년·20년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전국 지역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FC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송준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고령화로 부모 간병을 미리 준비하려는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장기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장기 간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실제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는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재선 기자

